

음악교육에서의 사회정서학습(SEL) 연구 동향과 과제

Trends and Issues i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 Research in Music Education

백고은* · 권슬기**

Go-eun Baek  · Seulgi Kwon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10년간(2015~2025) 국내 사회정서학습(SEL) 관련 음악교육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그 특징과 한계를 규명하는 데 있다. 총 5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도별 추이, 연구 방법, 출판 유형, 연구 대상, 사회정서학습의 핵심 역량, 음악 활동 유형 여부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SEL 연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하며 학문적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나, 문헌연구와 석사학위논문에는 편중되고 실증적 검증은 부족하였다. 연구대상은 학령기에 집중되었고, 핵심 역량 중 자기관리와 관계기술이 주로 다루어진 반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소수에 그쳤다. 음악 활동은 창작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 감상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또한 다수의 연구가 CASEL의 틀을 차용하였으나, 국내 맥락을 반영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SEL 음악교육 연구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사회정서학습, 음악교육, SEL, 사회·정서 역량, 교육과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of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 in music education in South Korea from 2015 to 2025, and to identify their key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A total of 57 studies were reviewed in terms of publication year, methodology, type, participants, SEL competencies, and musical activities. Findings show that SEL-related research expanded notably after 2020, reflecting growing academic interest. Yet it remained largely centered on literature-based studies and master's theses, with few empirical validations. Participants were mainly school-age learners, while self-management and relationship skills were most frequently addressed, and responsible decision-making was rarely explored, reflecting the emphasis on interpersonal and classroom-oriented aspects of SEL in music education. Musical activities focused heavily on composition, whereas listening received little attention. Most studies explicitly adopted CASEL's framework, but few contextualized SEL within the Korean educational environment. This study contributes by critically mapping current research on SEL in Korean music education and by offering a theoretical basis for future directions.

Key words: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music education, SEL, socio-emotional competencies, curriculum

* First author, E-mail: illiya86@hanmail.net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96 Sechojungang-ro, Seocho-gu, Seoul, South Korea

** Corresponding author, E-mail: herb1989@naver.com

Lecturer,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24 Gyo-dae-ro, Yeonje-gu, Busan, South Korea

I. 서론

최근 교육의 패러다임은 지식과 기술 습득 및 학업 성취를 넘어,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적 적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COVID-19 팬데믹은 학생들에게 전례 없는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발달 단절을 초래하면서 정서적 안정, 사회적 유대, 회복탄력성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었다(Center on Reinventing Public Education, 2021; Rosanbalm, 2021).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이하 SEL)은 학습과 발달을 위한 핵심적 의제로 부상하였다. SEL은 아동과 청소년이 자기인식(self-awareness), 자기관리(self-management), 사회적 인식(social awareness), 관계 기술(relationship skills), 책임 있는 의사결정(responsible decision-making)의 다섯 가지 역량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CASEL, 2020; Payton et al., 2008). 이와 같은 역량은 학습자가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타인과 협력하고, 목표를 계획하고, 책임 있고 배려심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SEL을 국가 교육과정, 학교 정책, 교사 연수 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메타분석 결과 SEL이 학업 성취, 학교 적응, 또래 관계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는 점이 확인되었다(Durlak et al., 2011; Taylor et al., 2017).

음악교육은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그리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등 SEL의 핵심 역량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정서적 발달을 지원하며, 이러한 역량이 수업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는 교과로 주목받아 왔다(Hallam, 2010). 음악 활동은 정서 표현, 자기 인식, 협력적 상호작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SEL과 긴밀히 연결된다. 쿠파나(M. Küpana)는 음악이 정서적 자극, 미적 경험, 자기 표현, 집단 경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SEL을 촉진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즉흥연주, 합창 및 합주, 음악을 통한 감정 표현 활동이 SEL 기술 발달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Küpana, 2015). 이처럼 음악교육은 정서적·사회적 발달을 지원하는 풍부한 장을 제공하며, 국제적으로 SEL과 음악교육의 접목을 탐구하는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먼저, 다수의 연구가 특정 프로그램의 단기적 효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거나 사례 중심 보고에 치중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효과를 밝히는 데 제한적이다(Cho, 2015; Kim, 2020; Kim et al., 2016). 또한, SEL의 핵심 역량을 모두 포괄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자기관리, 관계 기술 등 일부 역량에 집중하는 경우(Kim, 2015; Kim & Jung, 2023; Kim & Hong, 2017)가 많아 어떤 역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거나 소외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 이러한 연구 공백은 음악교육과 SEL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논의는 국내 음악교육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내

학교 현장은 여전히 입시 중심적 성취에 치중되어 있어, 학습자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악은 학습자가 경험하는 교과로, 사회정서학습의 다양한 역량을 자연스럽게 발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음악교육에서 사회정서학습의 이론적 가능성과 실천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망함으로써, 학문적 지평을 넓히고, 국내 맥락에 적합한 의미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국내 학술지 및 학위논문을 통해 발표된 SEL 연구를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분석(systematic review)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내 SEL 관련 음악교육 연구의 연도별 추세와 연구 방법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분야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SEL의 다섯 핵심 역량 중 어떤 영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졌는지를 검토하여 연구의 편중 양상을 파악한다. 셋째, SEL 역량이 국내 음악교육 내에서 어떠한 활동(합창, 즉흥연주, 감상 등)과 연결되어 구현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SEL과 음악교육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교수·학습 전략, 평가 모형, 정책적 논의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국내 SEL 관련 음악교육 연구의 연도별, 방법별, 학술지별 동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SEL의 다섯 가지 핵심 역량 중 어떤 영역이 음악교육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졌는가?

연구 문제 3. SEL은 음악교육 내 어떤 활동과 연계되어 구현되고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정서학습의 개념 및 5대 핵심역량

SEL은 인간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인지적, 신체적 발달 못지않게 중요한 축을 이루는 정서 및 사회적 기능의 체계적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육적 접근이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정서와 사고를 지각하고 통제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하고, 윤리적·도덕적 책임을 수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학습 과정을 지칭한다(CASEL, 2020; Elias et al.,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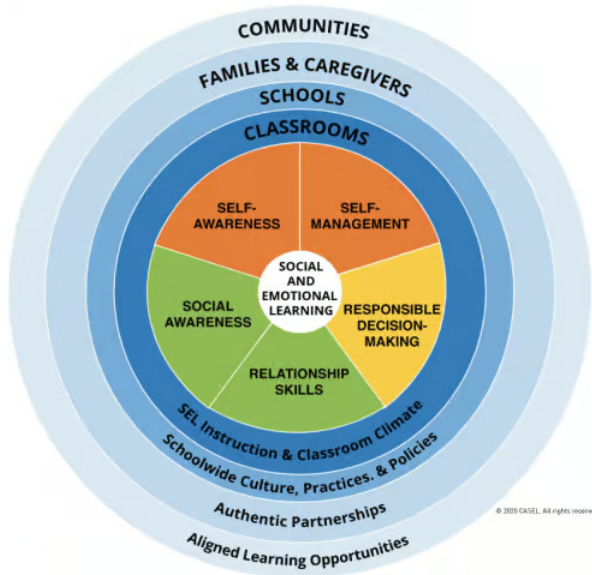
SEL은 인간의 사회화(socialization)를 가정, 지역 사회, 학교라는 점진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바라보던 전통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보다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서 및 사회적 역량을 교육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생애 발달 주기에서 조기 개입(early intervention)과 예방(prevention)이 가지는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더욱 부각되었다. 즉, 아동 및 청소년기에 SEL을 충분히 경험하고 훈련하지 못할 경우, 이후 성인기에 이르러 대인관계, 직업 적응, 시민사회 참여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며(Durlak, 2015), 이는 결국 개인의 정신건강 악화와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초래할 수 있다.

SEL은 모든 청소년과 성인이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감정을 관리하며 개인 및 집단적 목표를 성취하고, 타인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며,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책임감 있고 배려심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SEL은 진정성 있는 학교, 가정, 지역 사회 간 협력을 통해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되는 관계, 도전적이고 의미 있는 교육과정과 수업,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학습 환경을 형성시킴으로써 교육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킨다. 또한 SEL은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과 성인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CASEL, 2020).

SEL 개념은 미국의 비영리 교육기관인 ‘학업 · 사회 · 정서 학습 협의회(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CASEL)’에 의해 정립되었다. 이들은 SEL을 ‘개인과 집단이 정서와 사회적 기술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하여 삶의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정의하며(CASEL, 2020), SEL의 실천을 위한 구조화된 틀로서 CASEL 5, 다섯 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하였다(Figure 1 참조). 다섯 가지 역량은 학생 개인의 내면적 성장을 도울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 속에서의 책임감 있는 시민성 함양과도 직결된다. 역량은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으로 구성된다.

CASEL 5는 아동기부터 성인기에 이르는 다양한 발달 단계에서,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가르치고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CASEL 5를 기반으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습 기준과 역량을 수립하여, 학생들이 학업 성취, 학교 및 시민 참여, 건강, 의미 있는 진로를 위해 이해해야 할 것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CASEL 틀은 시스템적 접근 방식을 지니며, 모든 학생의 사회 · 정서 · 학업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실,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형평성 있는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CASEL은 SEL을 학교의 학업 교육과정과 문화 전반에 통합하고, 학교 전체의 실천과 정책, 가정 및 지역사회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형성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실천은 청소년의 목소리, 주도성, 참여를 촉진하고, 교실 및 학교의 지지적인 풍토와 규칙을 마련하며, 교사의 SEL 역량을 강화하고 진정성 있는 가정 및 지역 사회 간의 협력을 하도록 돕는다.



[Figure 1] CASEL 5 core competencies (CASEL, 2020, p. 1)

CASEL 틀에서 강조하는 주요 다섯 가지 역량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인식’은 개인이 자신의 정서 상태, 사고 패턴, 가치와 신념, 강점과 한계를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여 확고한 자신감과 목표를 가짐으로 긍정적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발달시키는 역량이다. 이는 반두라(A. Bandura)가 주장한 자기효능감 이론과도 밀접히 연계되며, 학생이 새로운 도전에 맞설 때 필수적인 내적 동기를 형성하는 토대를 제공한다(Bandura, 1997). 자기인식의 구체적인 예로 개인적 및 사회적 정체성의 통합, 개인의 감정 인식, 느낌·가치관·생각 간의 연결, 편견과 선입견 성찰, 자기효능감 경험, 성장 마인드셋, 흥미의 대상 탐색 등이 있다.

둘째, ‘자기관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인지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며, 충동을 통제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다. 나아가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자기조절과 자기 훈육을 포함한다. 이러한 능력은 짐머만(B. Zimmerman)이 제안한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 모형과도 연결되어, 학업 및 비학업 영역 모두에서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Zimmerman, 2000). 자기관리의 구체적인 예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전략 파악 및 활용, 자기동기부여, 개인 및 집단 목표 설정, 계획과 조직에서 필요한 기술 사용, 주도적 행동을 위한 용기, 개인 및 집단에서의 주도성 발휘 등이 있다.

셋째, ‘사회적 인식’은 다양한 문화적 · 사회적 맥락에서 타인의 관점과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사회적 · 윤리적 규범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타인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역사적 · 사회적 행동 규범을 이해하며, 가족 · 학교 · 지역사회 등의 자원을 인식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이는 다문화교육과 포용 교육(inclusive education)에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으로, 최근 학교 현장에서 증가하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 간 갈등 완화와 상호존중의 문화 조성에 기여한다. 사회적 인식의 구체적인 예로 타인의 감정 수용, 타인의 감정 인식, 타인의 감정 배려, 감사의 마음 이해 및 표현, 다양한 사회 규범(불공정한 것 포함) 인식, 상황적 요구와 기회 파악 등이 있다.

넷째, ‘관계 기술’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동하며,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부적절한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는 것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능력이다. 이 역량은 사회적 지지망 구축과 직결되며, 정신건강 및 장기적 웰빙(well-being)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Huppert, 2009). 관계기술의 구체적인 예로 긍정적인 관계 형성 및 유지, 문화적 역량 구현, 팀워크 형성, 협동적 문제 해결, 갈등의 건설적인 해결, 집단 내 리더십 발휘, 타인의 권리 옹호 등이 있다.

다섯째,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분석하여 가능한 대안들의 결과를 예측 · 평가함으로써 도덕적 ·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역량이다. 학생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탐색하고, 그 결과를 사려 깊게 예측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콜버그(L. Kohlberg)의 도덕 발달 단계론과도 연결되며, 개인이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적 가치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간주된다(Kohlberg, 1981). 책임 있는 의사결정의 구체적 예로 정보와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사고, 개인적 및 사회적 문제 상황에서 적절한 해결책 도출,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결과의 예측 및 평가, 개인 · 가족 · 공동체의 복지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 등이 있다.

이러한 핵심 역량과 구체적인 예들은 단순한 이론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학습목표로 설정되며 교수 · 학습활동 및 평가 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실제로 SEL은 교실에서 의도적 ·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기술(teachable skills)’로 간주되며(CASEL, 2020), 이는 표준화된 프로그램 뿐 아니라 국어, 음악, 체육 등 다양한 교과와 융합되어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Zins et al., 2004).

이러한 점에서 SEL은 학습자의 사회정서적 유능성(social-emotional competence)을 함양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는다. 사회정서적 유능성이란 자신의 정서, 사고, 행동을 이해

하고 조절하며, 타인의 정서와 관점을 공감적으로 수용하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역량을 의미한다(Durlak et al., 2011). 이는 단순한 정서 표현이나 통제를 넘어서, 문제 해결, 목표 달성, 스트레스 대처와 같은 발달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사회적 자원의 역할을 한다.

최근 OECD(2021)는 미래교육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인지적 요소를 넘어 정서·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SEL을 국가 교육과정과 정책에 통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 「글로벌 사회정서학습의 성장과 실천(Nurturing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cross the Globe)」에 따르면 SEL 프로그램이 교과목 전반에 걸쳐 통합되어야 하며, 교사들은 SEL 교육을 위한 피드백 제공, 전문성 개발, 준비성과 태도 향상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OECD, 2024). 또한 SEL은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디지털 및 원격 학습, 방과 후 활동 등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가르쳐져야 하며, 학교 분위기는 학생들의 소속감, 관계, 괴롭힘 및 스트레스 관리 등 SEL 역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권고는 SEL이 학생의 전인적 성장(holistic development)과 학업 성취를 지원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과 실천 차원에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음악교육과 SEL

음악은 인간의 느낌과 사고를 음을 통해 표현하고 향유하는 예술로, 언어만으로는 온전히 담기 어려운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고 전달하는 독특한 매개체로 기능해 왔다. 이러한 음악의 의사소통적 특성은 개인의 정서와 사고를 표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로 확장되어 타인과 새로운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교류하는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Hallam, 2010; North & Hargreaves, 1997). 고대의 플라톤(Plato)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음악을 인간의 감정과 도덕성 형성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았으며, 듀이(J. Dewey)는 예술교육을 개인의 내적 충동과 사회적 현실을 매개하는 통로로 보면서 이를 통한 민주적 시민성 발달을 강조하였다(Dewey, 1934).

이러한 관점은 현대 음악교육의 담론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음악이 단순한 기술적·지식적 학습을 넘어서 자아존중감 형성, 사회성 함양, 정서조절 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적 매개체로 이해되고 있다. 실제로 유슬린(P. N. Juslin)과 슬로보다(J. A. Sloboda)는 음악적 경험이 청자와 연주자 모두에게 심리 생리적 반응을 유발하며, 자기정서 인식과 정서조절을 학습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Juslin & Sloboda, 2010). 국내 연구에서도 조정은은 음악 경험이 있는 중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고 보고하여 음악 활동이 학생의

정서적 발달에 기여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Cho, 2017). 또한 켈쉬(S. Koelsch)는 음악이 뇌의 정서 관련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유대를 촉진하는 옥시토신 분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신경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며, 음악이 뇌 기반의 정서·사회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적 기제를 제공함을 보여주었다(Koelsch, 2014).

음악교육의 이러한 효과는 SEL의 다섯 가지 핵심 역량과도 밀접히 연결된다. 음악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면서 자기 인식 능력을 고양하게 된다. 또한 반복적인 연습과 무대 발표, 음악 선택과 활용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과정은 자기조절과 자기관리 역량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한다(Pellitteri, 2006; Pellitteri, Stern, & Nakhutina, 1999).

더불어 합창, 합주, 앙상블과 같은 협동적 음악활동은 타인의 관점과 감정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사회적 인식과 관계 기술을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실제로 쉤렌버그(E. G. Schellenberg)와 그의 동료들은 10개월간 그룹 형태의 음악수업을 받은 아동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유사한 통제 집단 아동을 비교한 연구에서, 음악수업 참여 아동들이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에서 보다 높은 향상을 보였고 특히 수업 시작 전 사회성 수준이 낮았던 아동에게서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Schellenberg et al., 2015).

이와 함께 즉흥연주와 작곡 과정에서 요구되는 문제 해결과 즉각적인 의사결정 경험(Stein, 2011)은 윤리적·도덕적 고려를 포함하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responsible decision making) 능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음악 활동은 학생들이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음악적 조화를 이루기 위한 협동과 양보의 태도를 습득하는 과정 속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협력적 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Bussu & Mangiarulo, 2024).

이와 같이 다수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음악교육이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릭슨(D. J. Rickson)과 와킨스(W. G. Watkins)는 음악활동이 학생들의 정서행동 조절 및 사회적 기술 향상, 문제행동 감소에 기여함을 보고하였으며(Rickson & Watkins, 2003; Nöcker-Ribaupierre & Wöfl, 2010), 국내 연구에서도 김선하, 양종모와 박진홍은 음악 활동을 통한 자기정서 조절과 자기표현, 자기존중감 향상뿐만 아니라, 소통·공감, 존중과 배려, 책임감, 협동심, 공동체 의식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Kim, 2009; Yang & Park, 2011). 또한 박희숙은 음악 활동이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공감적 이해와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사회정서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강조하였다(Park, 2015).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은 음악이 SEL에서 중시하는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같은 핵심 역량을 자연스럽게 함양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교육적 매개체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음악교육은 언어적·인지적 접근만으로는 충분히 다루기 어려운 정서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SEL의 다섯 가지 핵심 역량을 가장 자연스럽게 촉진할 수 있는 독자적 교육 장르라 할 수 있다. 이는 음악이 갖는 고유한 심리·신경과학적 기제와 더불어, 집단적 음악 활동 속에서 발휘되는 협동·공감·책임의 경험이 타 교과에서는 쉽게 얻기 어려운 교육적 가치임을 보여준다.

또한, 음악은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교과로서, 타 교과에서 채울 수 없는 영역을 보완하며, SEL의 다섯 가지 핵심 역량을 통합적으로 길러낼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SEL을 단순히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주입하기보다,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통합·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크다. 더불어 교사 역량 개발, 수업 설계 및 평가 방식의 혁신과 같은 교육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음악교육은 학교 문화 전반의 사회·정서적 역량 강화를 이끄는 핵심 매개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음악교육과 SEL의 연계는 예술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독자적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SEL은 사회·정서적 발달을 목표로 하는 기능적 접근을 강조하는 반면, 음악교육은 예술적 경험과 표현 그 자체에 내재된 심미적·자율적 가치를 중시한다. 따라서 양자의 결합은 학생들에게 자기표현과 공동체적 성장을 동시에 경험하게 함으로써, 인지·정서·사회적 차원을 아우르는 전인적 학습을 촉진한다. 나아가 이러한 접근은 심리학, 신경과학, 교육학, 예술학의 융합적 연구와 실천적 논의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 음악교육은 단순한 교과를 넘어 미래 교육의 핵심적 토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국내 음악교육에서 SEL 관련 연구 동향을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여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첫째, 국내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국내 학술기관에서 발간된 학술지 논문 및 학위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국내 학술지 인용색인 정보포털(KCI)에 등재된 학술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둘째, 해당 논문이 SEL의 개념 및 다섯 가지 핵심 역량(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 음악교육 맥락에서 SEL

을 실증적으로 다른 연구를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본문에서 SEL과의 연계성이 드러나지 않고, 초록이나 서론에서 문제의식 차원으로만 SEL을 언급하거나 결론에서 간단히 제언하는 수준에 그친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음악치료나 상담 분야에서 다른 연구는 본 연구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아울러, 국내에서 SEL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시기를 고려하여 분석 범위를 2015년 이후로 설정하였다. 이는 2010년대 중반부터 OECD의 Education 2030 프로젝트와 CASEL의 핵심역량 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용되면서, SEL 담론이 교육학 전반으로 확산된 흐름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자료 수집은 국내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 한국학술정보포털(DBpia)을 활용하였다. 검색 시에는 SEL과 관련된 개념어와 음악교육 키워드를 함께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 검색에서는 ‘사회정서학습’, ‘SEL’, ‘사회정서’와 음악교육을 결합하였고, 2차 검색에서는 SEL의 핵심 역량 즉, 자기인식, 자기관리, 관계 기술 등과 음악교육을 결합하였다. 총 65편의 논문이 1차적으로 수집되었으며, 중복 제거, 초록 검토, 본문 검토를 거쳐 SEL과 음악교육의 관련성이 낮은 논문은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자 2인의 검토 및 상호 합의 과정을 통해 최종 57편을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2. 분석 기준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은 국내 음악교육 동향 연구(Shin, 2020; Shin, 2023)와 교육 연구 동향을 다룬 선행연구(So et al., 2019)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분석 항목은 연구의 연도별 동향, 연구 방법, 출판 유형, 학교급 및 연구 대상, SEL 핵심 역량, 음악 활동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연구의 연도별 동향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구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실험, 설문조사, 통계분석 포함), 질적 연구(면담, 참여관찰, 사례 연구 등),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의 혼합 그리고 문헌연구 및 효과성을 검증한 프로그램 설계 연구로 분류하였다. 출판 유형은 학술지,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으로 구분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영아,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초·중·고 통합, 대학생, 성인, 유아부터 성인까지의 전 연령 대상, 특정 대상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각 연구가 다룬 SEL 역량은 CASEL(2020)이 제시한 다섯 가지 핵심 역량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논문이 SEL 전체 개념과 특정 핵심역량을 동시에 다루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각 범주에 중복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연구 주제

의 특성상 SEL의 다차원적 성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각 역량이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었거나 SEL과의 연계가 분명히 드러난 연구와, SEL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사회·정서 역량과 관련된 특성을 다룬 연구를 각각 명시적, 내포적 연구로 분류하였다.

끝으로, 음악 활동 유형은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영역 구분(연주, 창작, 감상)을 1차 준거로 삼았다. 그러나 실제 분석 과정에서 연주 활동에 해당하는 연구가 가창과 기악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연주 영역을 가창과 기악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들이 나타났으며, 이들은 분석 과정에서 귀납적으로 새로운 범주를 도출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음악 활동 유형은 가창, 기악, 감상, 창작, 전반적 음악 프로그램, 기타(예: 숲 체험 등 타 교과·활동과 융합된 프로그램)의 여섯 가지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교육과정의 기존 준거를 토대로 하되, 실제 연구 동향에서 드러난 특성을 반영하여 도출된 것이다.

이러한 분류 과정은 연구자의 해석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코딩한 뒤 상호 합의를 통해 최종 범주를 확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결과는 절대적 수치라기보다는 SEL과 음악교육 연구 동향을 조망하기 위한 분석적 경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 사회정서학습 담론은 CASEL의 5대 역량뿐 아니라 OECD의 Education 2030 프로젝트와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역량 체계 등 다양한 논의와 맞물려 확산되어 왔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되,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표적 이론 틀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OECD 및 국내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관련된 논의는 배경 차원에서 참고하되, 구체적 분석은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IV. 연구 결과

1. 국내 음악교육 연구의 동향

1) 국내 연구의 연도별 동향

총 57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음악교육 분야에서 SEL을 주제로 한 연구는 2015년 6편(10.5%), 2016년 4편(7%), 2017년 5편(8.8%), 2018년 5편(8.8%), 2019년 3편(5.3%), 2020년 10편(17.5%), 2021년 4편(7%), 2022년 4편(7%), 2023년 8편(14%), 2024년 3편(5.3%), 2025년 5편(8.8%)으로 나타났다. <Table 1>의 연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초기(2015-2019년)에는

<Table 1> Trends of domestic research by year

Year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Total
N(%)	6 (10.5)	4 (7.0)	5 (8.8)	5 (8.8)	3 (5.3)	10 (17.5)	4 (7.0)	4 (7.0)	8 (14.0)	3 (5.3)	5 (8.8)	57 (100)

매년 3~6편 수준의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고, 2020년에 10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집중적으로 발표되면서 양적 성장의 정점을 보였다. 이러한 증가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정서적 요구의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학생들은 원격 수업, 또래 관계 단절, 불안·우울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교 현장과 학계에서 SEL을 통한 정서 회복·사회적 관계 재구성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Mazrekaj & Witte, 2024). 음악은 정서 표현과 공동체적 경험을 촉진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위기 상황에서 SEL과 접목한 음악교육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Kim & Chong, 2023).

이후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연도별 편차가 있긴 하지만 매년 일정 수준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SEL과 음악교육 연구가 단발적 유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학문적 영역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국내 음악교육 연구의 연구 방법별 동향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SEL 관련 음악교육 연구의 방법론은 총 6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특정한 프로그램을 통한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는 등의 단순 인과관계를 밝히는 실험연구 11편(19.3%), 설문을 통해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연구 7편(12.3%), 변수 간 관계를 검증하여 예측, 일반화할 수 있는 통계분석연구 2편(3.5%), 설문과 인터뷰, 관찰을 통해 종합적인 검증을 하는 혼합연구 6편(10.5%), 실제적 적용 없이 이론을 바탕으로 교수·학습방안을 개발하는 문헌연구 19편(33.3%), 개발한 프로그램 또는 교수·학습방안을 실제 현장적용을 통해 검증하는 설계기반연구 12편(21.1%)이다. 각 연구 방법의 연도별 흐름은 <Table 2>와 같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음악교육 분야에서 SEL 관련 연구는 연구 목적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문헌연구(19편, 33.3%)는 매년 1편 이상 꾸준히 발표되었으며, 교육과정 분석과 교수·학습 방안 또는 교육 방법을 제안하는 성격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 다음으로 설계기반연구(12편, 21.1%)가 많아, SEL을 적용한 수업 프로그램이나 교수·학습안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검증하는 흐름이 확인되었다. 또한, SEL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도 2015년과 2018년에

<Table 2> Yearly trends of my research methods

Method \ Year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N(%)
Quantitative research	Experimental	3		1		2	4					1	11 (19.3%)
	Survey	1			2		1	1	1	1			7 (12.3%)
	Statistical									2			2 (3.5%)
Mixed research				1	1					2	1	1	6 (10.5%)
Literature research		1	3	2	1	1	2	2	2	1	2	2	19 (33.3%)
Design-based research		1	1	1	1		3	1	1	2		1	12 (21.1%)
Total		6	4	5	5	3	10	4	4	8	3	5	57 (100.0%)

각각 1편씩 발표되었다.

실험연구(11편, 19.3%)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21년 이후 한동안 공백이 있었고, 올해 석사학위논문으로 1편이 발표되었다. 조사연구(7편, 12.3%)는 음악활동과 SEL 역량 간의 단순한 관계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설문을 통한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2편 있었다. 혼합연구(6편, 10.5%)는 2023년도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SEL 과정을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통계분석연구(2편, 3.5%)는 변수 간 관계 검증과 예측을 시도한 연구로, 전체 연구 중 상대적으로 소수에 그쳐 인과관계나 일반화를 목표로 한 분석은 아직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음악교육 분야에서 SEL 연구의 방법론적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헌연구와 설계기반연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실험적·통계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연구 방법의 편중이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양한 연구 방법을 균형 있게 활용하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험연구는 일정 기간 공백기를 거치면서 최근에는 일부 석사학위 논문으로 발표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실증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조사연구와 통계분석연구는 단순 관계 파악에 그친 경우가 많아, SEL과 음악교육 간의 인과관계 규명이나 예측 가능한 모형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혼합연구는 정성적·정량적 접근을 통합하여 SEL 과정을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심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3) 국내 음악교육 연구의 출판 유형별 동향

SEL과 음악교육 관련 연구의 출판 유형을 살펴본 결과 석사학위논문이 30편(5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학술논문 24편(42.1%), 박사학위논문 3편(5.3%)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출판 유형의 연도별 흐름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Yearly trends of domestic research publication types

Year Publication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N(%)
Journal articles	3	3	4	1	2	4	1	1	3	1	1	24(42.1%)
Master's theses	2	1	1	3	1	5	3	3	5	2	4	30(52.6%)
Doctoral dissertations	1			1		1						3(5.3%)
Total	6	4	5	5	3	10	4	4	8	3	5	57(100.0%)

석사학위논문(30편, 52.6%)은 지난 10년간 발표된 논문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꾸준히 발표되었다. 특히 2020년에는 5편이 발표되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를 기점으로 이전보다 SEL 관련 학위논문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역시 4편이 발표되어 학위논문 주제로서의 관심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술논문(24편, 42.1%)은 매년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박사학위논문은 2020년 이후 발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학위논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매년 꾸준히 발표되는 이유는 SEL과 음악교육 연구가 실천적 적용 가능성을 강조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 주제는 비교적 짧은 연구 기간 안에 수행할 수 있어 석사과정의 특성과 잘 부합한다. 특히 2020년 이후 학위논문 수가 증가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교육 현장에서 SEL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박사학위논문은 장기적 연구가 요구되고 사례 자체가 제한적이어서, 최근에는 발표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연구 동향을 고려할 때, 음악교육 현장에서는 SEL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 개발과 교사 연수, 예비교사 교육과정 내 SEL 통합 등 실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4) 국내 음악교육 연구의 학교급 및 대상별 동향

SEL과 음악교육 관련 연구의 대상을 살펴본 결과, 지난 10년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9편(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생 대상 연구가 15편(26.3%)으로 나타났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문헌연구는 6편(10.5%)이었다. 이 외 고등학

생 대상 연구가 4편(7%), 초중고 통합 대상과 유아 대상 연구가 각각 3편(5.3%), 영아, 대학생, 성인 대상의 연구가 각각 2편(3.5%)씩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아부터 성인까지의 대상이 1편(1.8%) 발표되었다. 연구대상의 연도별 흐름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Yearly trends of research participants in domestic studies

Year Subject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N(%)
Infants (Ages 1-2)		1				1						2(3.5%)
Preschool children (Ages 4-5)	1		1		1							3(5.3%)
Elementary school	2		3	2	2	3	1				2	15(26.3%)
Middle school				3		4	2	2	4	2	2	19(33.3%)
High school	1							1	1		1	4(7%)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students						1	1		1			3(5.3%)
University students								1	1			2(3.5%)
Adult						1				1		2(3.5%)
All age groups			1									1(1.8%)
Literature data	2	3							1			6(10.5%)
Total	6	4	5	5	3	10	4	4	8	3	5	57(100.0%)

연구 대상의 분포를 살펴보면, SEL과 음악교육 관련 연구는 중학생(33.3%)과 초등학생(26.3%)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뚜렷한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초등학생 대상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중학생 대상 연구가 활발히 증가하였다. 이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학교 생활의 변화와 또래 관계 단절, 정서적 어려움이 청소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SEL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SEL과 음악교육의 접목은 발달적으로 중요한 학령기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반면, 유아·영아 및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는 발달 초기 및 성인기 사회정서 역량 발달과 음악교육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는데에는 여전히 연구 공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또한 문헌연구(10.5%)는 2015년과 2016년에 집중적으로 발표된 이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SEL과 음악교육 연구가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음악교육 연구에서는 유아·영아와 성인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SEL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발달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SEL 5대 핵심 역량 연구 분포

본 연구에서는 총 5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SEL의 다섯 가지 핵심 역량과 음악교육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SEL의 전체 개념을 중심으로 음악교육과의 관련성을 탐구한 연구는 33편으로 가장 많았다. SEL의 다섯 가지 핵심 역량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인식과 음악교육의 주제로 한 연구가 9편, 자기인식과 음악교육을 다룬 연구가 10편, 자기관리와 관련된 연구가 13편, 관계기술과 음악교육을 연결한 연구가 13편,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음악교육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가 4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연구는 SEL의 전체 개념과 특정 역량을 동시에 다루었는데, 이러한 경우 각각의 범주에 중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85개의 분석 사례가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분포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음악교육 연구에서 SEL의 전체 개념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나타내며, 동시에 다섯 가지 핵심 역량 중에서는 자기관리와 관계기술이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진 반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매우 제한적으로 탐구되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음악교육계에서는 SEL의 다섯 가지 핵심 역량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특히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영역을 강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관리와 관계기술 중심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량을 통합적으로 적용한 실천적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Table 5> Core competency-based classification

Keywords	SEL (overall)	Social awareness	Self- awareness	Self- management	Relationship skills	Responsible decision-making	Total
<i>N</i>	33	9	10	13	16	4	85

다음으로 57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SEL의 다섯 가지 핵심 역량 또는 각 역량의 하위 요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분석한 명시적 성격의 연구와 SEL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다섯 가지 역량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을 기술한 내포적 성격의 연구를 분류하고 각 범주에 속하는 연구 수를 집계하였다. 그 결과 명시적 성격의 연구는 44편, 내포적 성격의 연구는 13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류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Table 6> Classification of SEL-related keywords into explicit and implicit categories

Category	Criteria	N	Example keywords
Explicit	Explicit references to CASEL's five core SEL competencies (self-awareness, self-management, social awareness, relationship skills, and responsible decision-making) and their sub-components, or clear indication of linkage to SEL	44	self-awareness, self-management, social awareness, relationship skills, responsible decision-making, empathy, emotional intelligence, etc.
Implicit	No explicit use of SEL terminology, but descriptions of general emotion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SEL competencies	13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operation, emotional expression, etc.
Total		57	

3. SEL 음악 활동 유형 분포

본 연구에서는 57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SEL이 음악교육의 어떠한 활동과 연결되어 연구되었는지 분석하였다(<Table 7> 참조). 그 결과, 음악창작을 다룬 연구가 18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반적 음악프로그램, 가창, 기악을 다룬 연구가 각각 11편씩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외에 감상을 다룬 연구 9편, 기타 연구 2편으로 집계되었다. 기타 활동으로 분류된 연구에는 ‘숲체험과 음악 융합 프로그램’과 같이 음악적 요소가 다른 활동과 결합된 사례가 포함되었다.

<Table 7> Music activity-based classification

Keyword	General	Singing	Instrumental	Creative activities	Listening	Others	Total
N	11	11	11	18	9	2	85

이러한 결과는 SEL과 음악교육의 관련 연구가 창작 활동에 가장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18편). 이는 창작 활동이 학생들의 자기표현, 자기인식, 자기관리 등 SEL 역량을 직접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 다음으로 가창, 기악과 같이 적극적 참여와 표현 중심의 활동이 각각 11편으로 동일한 비중을 차지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반면, 감상 활동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9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EL과 음악교육 연구가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와 표현 중심 활동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음악교육계에서는 SEL과 연계된 창작·표현 중심 활동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감상 등 학습자의 수동적 참여 영역도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을 균형 있게 설계하는 교수·학습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국내 음악교육 연구 57편을 분석하여 SEL과 음악교육의 연계 양상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연구 시기 분포에서 2020년을 전후로 양적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학습자의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음악교육의 SEL 가치가 재조명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후에도 꾸준한 연구가 이어지며, SEL은 단발적 관심을 넘어 음악교육의 중요한 담론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연구 방법과 출판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문헌연구와 석사학위논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SEL과 음악교육 연구가 비교적 새로운 영역으로 현장의 실제 적용보다는 개념적 탐색과 시범적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 최근 들어 설계기반연구 및 실험연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연구가 점차 이론적 논의에서 실제적인 검증으로 확장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박사학위논문이나 종단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여, 학문적 심화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교사와 학생이 실제 수업 장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SEL 역량을 발달시키는지를 추적하는 장기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교실 맥락을 반영한 종단적 사례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연구 대상과 핵심 역량 측면에서,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집중된 반면, 유아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는 발달적으로 학령기에 SEL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생애주기 전반에서의 SEL과 음악 연계 가능성을 탐구하기에는 아직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예컨대, 유아기에는 리듬·노래 활동을 통해 자기조절과 정서 표현을 기를 수 있으며, 성인 학습자의 경우 합창·양상발 참여를 통해 협동과 공감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핵심 역량의 경우, 자기관리와 관계 기술이 두드러지게 다루어진 반면, 책임 있는 의사결정 역량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그쳤다. 이는 국내 연구가 SEL의 특정 역량에 편중되어 있으며, 균형 잡힌 접근에는 미흡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별 수업 장면을 고려하여, 각 발달 단계에서 어떠한 음악 활동이 SEL 역량(예: 자기인식, 공감, 의사결정 등)을 구체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SEL 개념 수용의 방식을 보면, 명시적으로 CASEL의 다섯 가지 역량을 언급한 연구가 대다수였다. 이는 국제적 담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내 학계에서 학문적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SEL을 국내 맥락에서 재해석하거나 토착화하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예컨대, 국내 음악 수업에서는 국악 합주나 민요 부르기 같은 활동을 통해 협력·공감·집단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화적 특수성을 SEL 역량과 연결하는 연구는 드물다. 또한 교과서 활동에서 ‘SEL 역량 아이콘’ 등을 제시한다면, 국제 기준을 단순히 차용하는 것을 넘어 한국 교육 현장에 맞춘 구체적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악 활동 유형에서는 창작, 가창, 기악과 같은 표현 중심 활동이 주를 이루었고, 감상 활동은 제한적으로 다루어졌다. 이는 SEL 연구가 주로 적극적 참여와 자기표현을 강조하는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음악 감상이나 수용적 활동을 통한 사회정서 역량 발달 가능성은 충분히 탐구되지 못하고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국악 공연을 감상한 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친구와 공유하기’ 활동을 하면 공감과 사회적 인식을, 특정 음악적 장면에서 느낀 감정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면 자기인식과 자기조절 역량을 촉진할 수 있다. 이처럼 감상 활동을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상호작용적·성찰적 과정으로 설계할 경우 SEL 역량 발달과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지난 10년간의 국내 SEL 음악교육 연구는 새로운 학문 영역으로서 기반을 마련하고, 점차 현장 적용으로 확장되는 발달 단계에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 핵심 역량, 음악 활동의 편중, 이론 수용 방식 등에서 일정한 한계과 불균형이 확인된다. 이는 향후 국내 연구가 학문적 성숙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를 보여준다.

국내 연구의 학문적·교육적 시사점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음악교육 분야에서 SEL을 다룬 연구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특정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 주제에 편중된 양상을 보였다. 문헌연구와 석사학위논문이 다수를 차지한 것은 SEL과 음악교육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에서 학문적 기반을 다져온 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동시에 균형 잡힌 연구 지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연구 방법과 심화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SEL의 다섯 가지 핵심 역량 중 자기관리와 관계 기술이 주로 다루어진 반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에 그쳐 연구의 확장이 필요하다. 예컨대 합창 수업에서 곡의 해석이나 연주 방식을 학생들이 모둠별로 협의·토론하도록 설계한다면, 책임 있는 의사결정 역량을 음악교육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이고 실제적 교수·학습 장면을 다룬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국내 연구가 CASEL의 이론을 주로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국내의 교육 현실과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개념화와 도착화 작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CASEL이 제시한 다섯 가지 핵심 역량은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준거 틀이지만,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한국의 교육과정, 학교 문화, 학습자 특성과의 괴리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연구는 단순한 이론의 수용을 넘어, 한국 사회의 학습 환경과 정서적 요구, 공동체적 가치관을 반영한 새로운 해석과 적용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과서 단원 속 활동에 SEL 역량을 명시적으로 연결하거나, 교사 연수 과정에서 실제 수업 장면을 분석·재구성하는 워크숍을 운영하는 등, 현장 교사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 교육에서 강조되는 협력적 학급 문화,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참여, 입시 중심의 교육체제 속 정서적 돌봄의 필요성을 SEL 연구에 적극 반영한다면, 보다 실질적이고 맥락화 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은 단지 이론적 적용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담론 속에서 국내 SEL-음악교육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학문적 기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창작, 가창, 기악 활동 중심의 연구 결과는 음악교육이 학습자의 자기표현 협력, 자기조절 능력 등 사회정서 역량을 길러주는 효과적인 장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감상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져 음악 감상을 통한 정서적 공감이나 내적 성찰의 가능성은 충분히 탐구되지 못하였다. 더불어 연구 대상이 주로 학령기에 집중된 것은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결과이지만, 유아기와 성인기, 평생교육 맥락에서의 SEL과 음악교육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향후 연구는 무엇보다 효과성 검증과 실증적 연구를 강화하여 SEL 기반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를 장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또한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연령층과 교육 맥락에서 SEL과 음악교육의 관계를 탐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음악 활동의 범위 또한 창작과 가창을 넘어 감상, 융합 활동 등으로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담론을 단순히 차용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사회와 교육 현장에 적합한 방안들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교사 교육과정과 현장 수업, 나아가 교육 정책 차원에서 SEL과 음악교육의 시너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Freeman.
- Bussu, A., & Mangiarulo, M. (2024). Playing music together: Exploring the impact of

- a classical music ensemble on adolescent's life skills self-perception. *PIOS ONE*, 19(7), e0306326.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306326>
- CASEL (2020). *What is SEL?* Retrieved July 25, 2025, from <https://casel.org/what-is-sel/>
- Center on Reinventing Public Education (2021). *How has the pandemic affected students' social-emotional well-being?* ERIC. Retrieved August 2, 2025, from <https://eric.ed.gov/?id=ED614131>
- Cho, J. (2015). Developing social emotional learning model and program for music education at secondary schools. *Journal of Music Education Technology*, 23, 239-259.
- Cho, J. (2017). The effects of music experience on aggression and self-esteem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Music Education Technology*, 31, 79-97.
- Dewey, J. (1934). *Art as experience*. Minton, Balch & Company.
- Durlak, J. A. (Ed.) (2015). *Handbook of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Research and practice*. Guilford Publications.
- Durlak, J. A., Weissberg, R. P., Dymnicki, A. B., Taylor, R. D., & Schellinger, K. B. (2011). The impact of enhancing students'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 meta-analysis of school-based universal interventions. *Child Development*, 82(1), 405-432.
- Elias, M., Zins, J. E., & Weissberg, R. P. (1997). *Promoting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Guidelines for educators*. Ascd.
- Hallam, S. (2010). The power of music: Its impact on the intellectual, social and personal development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28(3), 269-289.
- Huppert, F. A. (2009). A new approach to reducing disorder and improving well-being.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4(1), 108-111.
- Juslin, P. N., & Sloboda, J. A. (2010).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music and emotion research. In P. N. Juslin & J. A. Sloboda (Eds.), *Handbook of music and emotion: Theory, research, applications* (pp. 933-955). Oxford University Press.
- Kim, E. (2020). Social-emotional learning-based music program development for social inclusion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17(2), 83-100.
- Kim, H. Y., & Hong, J. M. (2017). The effects of cooperative music activities on young children's musical creativity and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8(2), 971-990.
- Kim, H., & Chong, H. (2023). University students' use of music as academic stress coping strategy during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 and Instruction*, 23(6), 483-496.
- Kim, J. I., Yoon, S., & Cho, D. H. (2016). Design of a music instruction plan based on the SEL theory: With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usic and Critic*, 8, 67-85.
- Kim, S. H. (2009). The effects of rhythmic ensemble to improve social skills of children with low income family.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11(1), 40-59.
- Koelsch, S. (2014). Brain correlates of music-evoked emotions. *Nature reviews neuroscience*, 15(3), 170-180.
- Kohlberg, L. (1981).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Moral stages and the idea of justice*. Harper & Row.
- Küpana, M. N. (2015). Social emotional learning and music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Education Research*, 1(2), 322-332.
- Mazrekaj, D., & De Witte, K. (2024). The impact of school closures on learning and mental health of children: Lessons from the COVID-19 pandemic.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9(4), 686-693.
- North, A. C., & Hargreaves, D. J. (1997). Liking, arousal potential, and the emotions expressed by music.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38(1), 45-53.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1). *Education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4324/9781003179900>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4). *Nurturing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cross the globe: Findings from the OECD survey on social and emotional skills 2023*.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32b647d0-en>
- Park, H. S. (2015). *Development of a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for young children based on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its effects*. Doctoral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 Payton, J., Weissberg, R. P., Durlak, J. A., Dymnicki, A. B., Taylor, R. D., Schellinger, K. B., & Pachan, M. (2008). *The positive impact of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for kindergarten to eighth-grade students: Findings from three scientific reviews*. Technical Report.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NJ1).
- Pellitteri, J. (2006). The use of music in facilitating emotional learning.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and Clinical Perspectives. In J. Pellitteri, R. Stern, C. Shelton, & B. Muller-Ackerman (Eds.), *Emotionally intelligent school counseling* (pp. 179-194).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1410613172>
- Pellitteri, J., Stern, R., & Nakhutina, L. (1999). Music therapy and emotional intelligence

- in children. *The Arts in Psychotherapy*, 26(1), 13-25.
- Rickson, D. J., & Watkins, W. G. (2003). Music therapy to promote prosocial behaviors in aggressive adolescent boys—a pilot study. *Journal of Music Therapy*, 40(4), 283-301.
- Rosanbalm, K. (2021).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during COVID-19 and beyond: Why it matters and how to support it*. Hunt Institute.
- Schellenberg, E. G., Corrigan, K. A., Dys, S. P., & Malti, T. (2015). Group music training and children's prosocial skills. *PLOS ONE*, 10(10), e0141449.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41449>
- Shin, H. K. (2020). Research trends in teaching and learning music composition using technology.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43, 129-146.
- Shin, H. K. (2023). Analysis of international research trends in online music education.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54, 203-222.
- So, K. H., Hu, Y. J., Park, J., & Chang, Y. W. (2019). A meta-analysis of international trends in curriculum studies: Based on the papers presented in AERA since 2010.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7(4), 117-142.
- Stein, E. W. (2011). Improvisation as model for real-time decision making. In F. Burstein, P. Brézillon, & A. Zaslavsky (Eds.), *Supporting real time decision-making* (Annals of Information Systems, Vol. 13, pp. 13-32).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1-4419-7406-8_2
- Yang, J. M., & Park, J. H. (2011). The effects of orchestra activity on learning achievements. *Journal of Music Education Technology*, 12, 149-159.
- Zimmerman, B. J. (2000). Attaining self-regulation: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In M. Boekaerts, M. Zeidner, & P. R. Pintrich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pp. 13-39). Academic press.
- Zins, J. E. (Ed.) (2004). *Building academic success o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What does the research say?*. Teachers College Press.